

조성당 김택룡의 인맥 기반과 문학 네트워크

최은주*

- I. 머리말
- II. 문집과 일기를 통해 본 그의 인맥 기반
- III. 문학 네트워크의 형성과 특징적 경향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도 예안 출신의 선비 金澤龍(1547~1627)의 문집과 일기를 교차 분석해 그의 삶 전반과 밀착되어 있는 인맥 기반을 먼저 검토하고 그 속에서 문학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며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택룡의 인맥 기반에서 혈연 및 혼맥 관계를 제외하면 성재 금난수와 월천 조목이 기본적인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상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교류한 인물들로는 금난수와 조목을 중심으로 월천계 퇴계 문인들이 포진해있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갈등했던 인물들로는 비월천계 퇴계 문인들이 포진해 있었다. 40세 이전은 과거 대비 공부와 학문 연마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고, 40세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ejchoi@koreastudy.or.kr

다. 그리고 1610년(광해군2) 64세까지 김택룡은 지역과 서울 그리고 외직에 따라 임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했다. 1611년부터는 다시 예안과 영주 그리고 봉화를 오가며 지역에서의 일상을 영위했다. 그의 인맥 기반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지역을 벗어나 있을 때는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범퇴계학과 및 영남 출신의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했다면,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학과내에서도 월천계 그리고 예안내에서도 월천의 황성조씨 가문과 부포의 봉화금씨 가문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말년에는 ‘월천종향’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퇴계학과 비월천계 인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김택룡의 문학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선택적이고 집중적이었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순간이었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제한된 영역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을 때였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간이 1600년·1601년 명나라 군대의 접반사가 되어 교동에 머무를 때였는데, 김택룡은 이 시절에만 중국 장수·교동현감 등을 비롯해 총 10명에게 30제 47수의 한시를 써서 주었다. 문학 교류의 대상에 있어서는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새롭든 익숙하든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연대감을 전제했고 필요에 따라 목적성을 깔기도 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선택적이거나 의도적이었다.

◆ 주제어

조성당 김택룡, 성재 금난수, 조성당일기, 성재일기, 문학 네트워크, 월천종향

I. 머리말

본 연구는 개인의 문집과 일기를 교차 분석해 삶 전반과 밀착되어있는 인맥 기반을 먼저 검토하고 그 속에서 문학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며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 네트워크는 漢詩 授受 또는 詩會 참여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맥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개인의 삶은 수없이 만나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문집과 일기를 따라 교류 인맥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해가다 보면 그의 뒤로 펼쳐지는 당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함께 만나게 된다. 문학 네트워크는 그러한 인맥 기반 내에서 펼쳐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인맥 전반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의도적 또는 집중적일 수 있다. 개인의 문집과 일기가 동시에 남아있는 경우 그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지 볼 수 있는데, 정작 문학 수수를 하는 대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¹⁾

인맥은 한번 맺어진 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움직인다. 지속적인 교류로 친밀감이 돈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소원해지거나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인맥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그 속에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그때 그때 처하는 환경이 개입되면서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시 교류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새롭든 익숙하든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연대감을 요구하며, 때때로 목적성을 깔고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조건들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출신 지역과 가문의 위상·학맥 계승·과거 급제 및 관직 활동 등과 같은 것이다. 결국 한시 교류도 개인이 그때 그때 처하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징적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

1) 개인의 저술만 남아있는 경우 문집에 수록된 한시 교류 예컨대 상대가 존재하는 화차 운시·贈詩·송별시 등의 사례들은 피상적이기는 해도 그의 교류 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최은주의 논문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가 있다.

어주는 것이 곧 일기자료이다.

경상도 예안 출신의 선비 金澤龍(1547~1627)은 퇴계의 제자 月川 趙穆(1524~1606)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惺惺齋 琴蘭秀(1530~1604)를 각별하게 따랐다. 그는 1586년(선조19) 40세에 천거로 경릉참봉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1586년 문과에 급제한 후 내외직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타지 생활을 오래하였다. 또한 월천 사후에는 퇴계를 주향으로 모신 도산서원에 월천의 종향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범퇴계학과 문인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²⁾ 당시 영남 지역은 퇴계학과 중심의 남인들이 정치적 영향 및 師承 관계에 따라 내부적 분화를 한참 겪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벗어나면 외형적 결속을 놓지 않을 때였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김택룡의 인맥 기반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목한 것이다. 나아가 그의 관직 경력은 지역 출신이었던 그의 인맥 기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문학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적 경향을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문집과 일기가 동시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아있는 문집이 4권 2책으로 분량이 소략하고,³⁾ 일기도 말년에 해당하는 3년에 불과하므로⁴⁾ 자료적 접근의 관점에서는

2) 이에 대해서는 박동일의 논문 「月川學團의 동향 일고찰-趙穆의 합천지역 교유인물과 陶山書院 從享을 중심으로」(『남명학연구』 57,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3) 김택룡의 문집은 1912년에 간행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240년이 지난 1863년(철종14)에 방계 자손 金載琚이 「遺事」를 쓰면서 김택룡의 저술을 수습한 상황을 기록하며 그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4) 김택룡의 일기는 3권이 남아있는데, 곧 3년의 기록이다. 그의 나이 66세이던 1612년(광해군4)과 70세이던 1616년(광해군8),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17년의 일기가 전해진다. 일기는 날짜와 날짜만 적어놓거나 나중에 추가로 기록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록되어 있다. 김택룡의 친필 일기로 판단되는데, 중간중간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 같은 부분도 더러 보인다. 아마도 본인이 형편상 직접 쓰기 어려울 때 누군가를 시켜 쓰게 했을 것이라 파악된다. 일기의 형식과 기록 성향으로 볼 때, 김택룡은 매일매일 기록을 반드시 남기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쏟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3권의 일기는 아마도 그가 작성한 전체 일기의 일부분에 불과할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각별한 사이였던 금난수의 『성재일기』에서 젊은 날의 김택룡의 모습을 비교적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고, 동시대 다른 인물들의 일기와 문집에서도 김택룡의 자취와 흔적을 일정부분 발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자료들을 보완해서 분석하면 입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조성당 김택룡에 대해서는 그의 일상 속 문화생활,⁵⁾ 혼인 및 가족,⁶⁾ 시조 창작⁷⁾을 검토 분석한 연구와 그리고 당시 그가 생활했던 지역의 구체적 실상을 정밀하게 추적한 연구⁸⁾가 있다. 이 외에 김택룡의 삶의 행적을 통해 영남사족사회의 변천을 살핀 연구도 있다.⁹⁾ 현재까지 김택룡의 인맥 기반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형성한 문학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핀 연구는 없으므로 본고는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II. 문집과 일기를 통해 본 그의 인맥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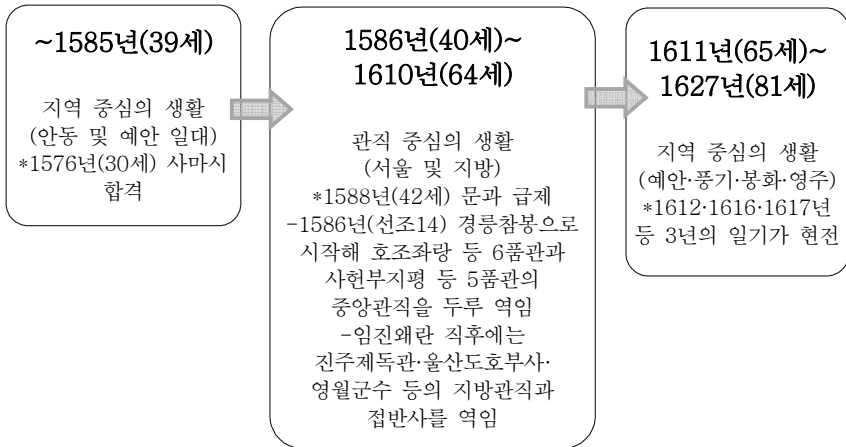
김택룡의 자는 施普, 호는 臥雲子·操省堂, 관향은 義城이다. 1547년(명종2) 禮安縣 寒谷[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김택룡의 4대조인 金孝友가 예안 한곡에 복거한 이후로 이곳에 세거하였다. 부친은 훗날 승지에 추증된 金揚震이고 모친 淑夫人 安東金氏는 내금

것이다.(하영휘, 「<조성당일기> 해제」, 『조성당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0, 13~14쪽 참조)

- 5) 윤성훈, 「<조성당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초 영남사족의 일상 속의 문화생활」, 『한문학논집』 35, 근역한문학회, 2012.
- 6)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인과 가족-김택룡 가족의 이야기-」, 『복현사림』 35, 경북사학회, 2017.
- 7) 조지형, 「조성당 김택룡의 예안 생활과 시조 창작」,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8) 유인태, 「17세기 예안-영주-봉화를 잇는 한 양반의 생활 경계」,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 9) 백광훈, 「예안 사족 김택룡과 영남사족사회」,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위 金礪光의 딸이다. 문집에 수록된 연보에 의하면 김택룡은 1554년(명종9) 8세 때 月川 趙穆(1524~1606)의 문하생이 되었고, 1563년(명종18) 17세 때 敬陵參奉 李思義의 딸 高陽李氏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는 후사없이 일찍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李義綱의 딸 진성이씨와 재혼해 5남 6녀의 자식을 두었다.

아래의 도표는 문집과 일기를 통해 그의 삶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것이다.



김택룡은 39세까지는 지역 중심의 생활을 영위했다. 이 시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지역 유생들이 그러했듯이 김택룡 또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8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목의 문하생이 되었는데, 김택룡은 나중에 지은 시에서 이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昔我志學初
幾度登鱣堂
從遊惺惺齋
洛水之中央

옛날 내가 학문에 뜻을 둔 처음에
몇 번이나 강학하던 자리에 올랐던가
惺惺齋를 따라 노닐었으니
낙동강 물줄기 한가운데였었지

| | |
|-------|---------------------------------|
| 建事月川翁 | 뒤이어 월천 어른을 모셨으나 |
| 摳衣經十霜 | 옷살 걷고 가까이 모신 지 십 년 |
| 學有不及時 | 배움에 때를 놓쳐버리면 |
| 寧望起翱翔 | 어찌 몸 일으켜 높이 날기를 바라랴 |
| 縱及溪上門 | 溪上的 문하에 이르렀으나 |
| 冥擿空迷方 | 부질없이 방향을 몰라 헤메었네 ¹⁰⁾ |

김택룡은 처음 학문에 뜻을 두었을 때 여러 차례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했고 그때 금난수를 從遊하며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승 조목을 가까이에서 직접 모시며 공부했는데 그 세월이 10년에 가까웠다. 계상의 문하에 이르렀다는 것은 조목을 모시고 퇴계 이황의 문하에 나아간 것을 가리킨다. 연보에 1564년(명종19) 그의 나이 18세 때 퇴계를 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단편적이지만 문집의 기록들 그리고 말년 3년에 불과하지만 비교적 상세한 일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금난수, 조목, 이황은 김택룡의 인맥 기반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을 형성한다. 일상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교류한 인물들로는 금난수와 조목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포진해있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갈등했던 인물들로는 퇴계의 문인들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택룡은 어려서부터 금난수¹¹⁾를 증유했기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난

10) 이 시는 총 8수로 이루어진 「한가로이 거처하며 회암의 擬古 시에 차운하다[閑居次晦菴擬古]」라는 작품의 넷째 수에 해당한다. 시 내용으로 추정했을 때 김택룡이 말년에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11) 금난수는 자가 聞遠이고, 호는 孤山主人 혹은 惺齋惺齋齋이며, 본관은 奉化이다. 봉화금씨의 시조 英烈公 琴儀(1153~1230)의 16세 후손이다. 금의가 봉화현에 터를 잡은 이후로 봉화금씨는 대대로 봉화에서 세거하였으므로, 금난수의 집안 역시 봉화에서 세거하였다. 금난수의 집안이 예안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는 그의 고조부 琴淑이 司諫 權簡의 딸에게 장가가서 처향인 禮安縣 浮羅院[현 부포 마을]로 입향하면서부터이다. 금난수는 고조부 금숙의 여섯 번째 아들 금증으로부터 조부 琴致韶(1460~1547), 부친 琴憲(1493~1576)의 계보를 잇는다. 그는 평생의 지기였던 조목의 인도에 따라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조목의 누이동생과 혼인해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수의 아들들과 친분을 쌓았다. 금난수는 조목의 누이동생과 혼인해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는데, 4남은 곧 琴愷(1553~1634)·琴[櫟](1557~1638)·琴愷(1562~1629)·琴恪(1571~1588)이다. 김택룡은 요절한 막내아들 금각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이러한 교유의 모습은 금난수가 남긴 『성재일기』에서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성재일기』의 기록 기간은 1560년 11월 9일부터 1561년 9월 3일까지와 1575년 5월 13일부터 1604년 2월 13일 금난수의 임종일까지이며, 권말에 1554년 10월 30일부터 1556년 12월 17일까지의 일기가 덧붙여있다.¹²⁾ 금난수의 일기에서 김택룡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576년(선조8) 5월 13일이다. 금난수는 부친의 小祥을 지냈다고 기록하며 이날 방문한 사람들을 모두 기록했는데, 그 안에 김택룡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해 금난수는 46세였고, 김택룡은 28세였다. 이듬해는 10월 11일에 김택룡이 다녀갔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했다. 김택룡이 금난수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조목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깝게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1578년 4월부터 포착되기 시작한다.

□ 1578년(선조11) 4월 6일

경과 업 두 아이와 金施普[김택룡]가 鳳城[봉화]에서 돌아와 고산에 머무르며 여러 경치를 감상하였다.¹³⁾

조목은 1568년(선조1) 집경전 참봉을 사직한 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1576년(선조9) 10월 봉화현감에 부임해 1579년 7월까지 재직했다. 김택룡과 금난수의 세 아들은 이 시기에 봉화를 자주

12)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현손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거하면 현전하는 1책의 『성재일기』는 금난수가 직접 기록한 원본이 아니라 그 아들이 베껴 쓴 필사본이며 기록 기간은 1560년부터 1561년까지, 그리고 1575년부터 1604년까지라고 했다. 이 가운데 1560년과 1561년, 1554년부터 1556년까지는 대부분 누락되거나 내용이 소략한데,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유실되고 남은 부분이라 손상이 심해서 1711년에 남은 내용을 옮겨 쓴 후 배접하고 보완했기 때문이다.

13) 금난수, 『성재일기』, 1578년 4월 6일.

왕래하며 조목과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해 4월에는 17일부터 22일까지 함께 청량산을 유람했는데, 참여한 인물이 조목, 금난수와 그의 차남 금업, 김택룡과 그의 사촌 김경룡 모두 5명이었다. 각자 출발해 산에서 만났는데 4월 20일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1578년(선조11) 4월 20일

白雲庵에 올라가서 硯滴峯을 오른 뒤에 도로 滿月庵으로 내려왔다 암자 벽에다 “趙士敬[조목]은 봉성[봉화]에서 오고, 琴聞遠[금난수]은 그의 아들 업과 함께 고산에서 오고, 김시보[김택룡]는 그의 사촌 景龍과 함께 東谷에서 왔다. 함께 연적봉을 올라가 선경의 구름 경물과 화사한 연초록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오다.”라고 썼다. 봉화 수령이 또 절구 한 수를 읊어 벽에 썼다.

김택룡에게 조목과 금난수는 사제 관계 그 이상이었다. 예안현 내에 있을 때에도 예안현을 떠나 타지에 있을 때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만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러한 모습은 금난수의 일기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성재일기』에서 김택룡이 얼마나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때 지역은 어디였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1] 금난수의 일기에 기록된 김택룡과의 교류 현황

| 연도 | 기록횟수 | 교류지역 | 연도 | 기록횟수 | 교류지역 |
|-------|------|------|-------|------|------|
| 1576년 | 1 | 예안 | 1590년 | 2 | 서울 |
| 1577년 | 1 | 예안 | 1591년 | 2 | 예안 |
| 1578년 | 4 | 예안 | 1592년 | 2 | 예안 |
| 1579년 | 2 | 예안 | 1593년 | 1 | 예안 |
| 1580년 | 2 | 서울 | 1596년 | 2 | 예안 |
| 1581년 | 1 | 예안 | 1597년 | 4 | 예안 |
| 1585년 | 4 | 서울 | 1599년 | 1 | 예안 |
| 1586년 | 6 | 서울 | 1600년 | 1 | 예안 |
| 1587년 | 8 | 서울 | 1601년 | 1 | 예안 |
| 1588년 | 14 | 서울 | 1602년 | 6 | 예안 |
| 1589년 | 6 | 서울 | 1603년 | 2 | 예안 |

1576년과 1577년은 금난수가 부친상을 당해 시묘살이 중이었기에 왕래가 잦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78년은 함께 청량산을 유람했던 해이다. 1579년(선조12) 4월 금난수는 遺逸로 제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서울로 떠날 때 지역의 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날이 6월 4일이었다. 아래의 예문은 6월 4일의 일기이다.

□ 1579년(선조12) 6월 4일

고을 친구 琴夾之 형제, 李大用, 李通叔, 權文源, 김시보[김택룡] 및 동네 여러 어른이 모두 모여 전별을 해주었다.¹⁴⁾

김택룡도 참석해 금난수를 전송했다. 이날 참석한 금협지 형제는 日休堂 琴應夾(1526~1596)과 勉進齋 琴應燠(1540~1616)을 가리킨다. 이대용은 梅巖 李叔樾(1591~1592)으로 농암 이현보의 아들이며, 이통숙과 권문원은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금응훈은 이황의 문인으로 이 시기가 지역 인물들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성재일기』뿐만 아니라 金垚(1577~1641)의 『계암일록』과 김택룡의 일기에도 등장하는데, 특히 김택룡은 말년에 도산서원에 월천의 종향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금응훈과 대립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때부터 금난수는 1590년(선조23)까지 집경전 참봉 · 경릉 참봉 · 장흥고 직장 · 장예원 사평 등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주로 서울에 머물렀다. 1580년(선조13) 2월 김택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금난수의 아들들 금경·금엽·금개과 함께 서울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금난수가 2월 11일의 일기에서 “경과 엽 두 아이는 呂州에서부터 愷와 헤어져 육로로 오고, 아이 개는 김시보[김택룡]와 함께 뱃길로 왔는데, 한꺼번에 도성에 들어왔다.”¹⁵⁾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김택룡은 이해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다. 이후 몇 년간은 만남이 뜸했는데 이는 서울과 예안이

14) 금난수, 『성재일기』, 1579년 6월 4일.

15) 금난수, 『성재일기』, 1580년 2월 11일.

라는 물리적 거리 때문이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1585년(선조18) 금난수의 일기에서 김택룡이 자주 언급된 이유는 당시 조목이 공조좌랑에 임명되어 3월 초 무렵 서울에 도착했고 김택룡 또한 과거 응시를 위해 당시 서울에 있었던 터라 일부러 자주 만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¹⁶⁾ 3월 23일에는 조목의 생일이라고 김택룡을 불러 함께 만났고, 3월 29일에는 관직을 사양하고 내려가는 조목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또 같이 만났다. 이 자리에는 영주 출신의 良齋 李德弘(1541~1596)도 있었다.

김택룡은 1586년(선조19) 6월에 천거로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다.¹⁷⁾ 금난수의 기록에 의하면 1586년 7월 22일 김택룡이 뱃길로 도성에 도착했고, 다음 날 사은숙배하였으며, 다음 날부터 임소에 부임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김택룡과 금난수는 서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김택룡의 연보에 따르면 1588년(선조21)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얼마 후 승문원 저작에 임명되었다.¹⁸⁾ 금난수는 김택룡이 문과에 응시해 최종 합격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¹⁹⁾ 금난수가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때가 1590년(선조23) 4월이었다. 이때까지 김택룡과 금난수는 서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김택룡은 자연스럽게 금난수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래의 도표는 『성재일기』에서 당시 서울에서 모임을 통해 자주 어울렸던 인물들의 정보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일기의 특징상 성과 자를 붙여 기록하거나 성과 관직명을 붙여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인이 가능한 인물들만 정리했다. 이 명단에서 김

16) 당시 금난수는 아들들의 과거 시험 응시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했는데, 김택룡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김택룡 역시 금경을 비롯한 금업·금개와 함께 서울에 머무르며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김택룡, 『조성당집』, 「조성당선생연보」, “(隆慶)十四年丙戌[先生四十歲] 六月薦授將仕郎 敬陵參奉”

18) 김택룡, 『조성당집』, 「조성당선생연보」, “(隆慶)十六年戊子[先生四十二歲] 登文科兩科 ○爲通仕郎 ○尋補承文院著作”

19) 금난수, 『성재일기』, 1588년 3월 일기 참조.

택릉은 제외하였다.

[표-2] 금난수가 서울에서 교류한 인물들의 명단(『성재일기』 참조)

| 성명 | 생몰연도 | 자 | 호 | 본관 | 사승관계 | 거주지 | 과거급제 및 관직 ²⁰⁾ |
|-----|-----------|----|-----|----|------------------|-----|--------------------------|
| 鄭復始 | 1522~1595 | 以建 | 桂潭 | 동래 | 서경덕의 문인 | 회덕 | 1555년 문과급제 |
| 鄭琢 | 1526~1605 | 子精 | 藥圃 | 청주 | 이황·조식의 문인 | 예천 | 1558년 문과급제 |
| 趙穆 | 1524~1606 | 士敬 | 月川 | 횡성 | 이황의 문인 | 예안 | 봉화현감·합천군수 등 |
| 裴三益 | 1534~1588 | 汝友 | 臨淵齋 | 홍해 | 이황의 문인 | 안동 | 1564년 문과급제 |
| 鄭崑壽 | 1538~1602 | 汝仁 | 栢谷 | 청주 | 이황의 문인 | 성주 | 1576년 문과급제 |
| 閔應箕 | 1530~1578 | 伯嚮 | 景退齋 | 여흥 | 이황의 문인 | 영주 | 광해군 왕자사부 |
| 李喬 | 1531~1595 | 君美 | 遠庵 | 진성 | 이황의 문인 (조카) | 예안 | 사헌부감찰 등 |
| 李憲 | 1532~1592 | 子修 | 栗里 | 연안 | 이황의 문인 | 예천 | 1574년 문과급제 |
| 李逢春 | 1542~1625 | 根晦 | 鶴川 | 진성 | 이황의 문인 | 안동 | 1576년 문과급제 |
| 李庭檜 | 1542~1613 | 景直 | 松澗 | 진성 | 이황의 문인 | 안동 | 사헌부감찰 등 |
| 朴櫛 | 1551~1592 | 居中 | 勿齋 | 고령 | 이황의 문인 (손녀사위) | 영주 | 수운관관 등 |
| 李德弘 | 1541~1596 | 宏仲 | 良齋 | 영천 | 이황의 문인 | 예안 | 집경전참봉 등 |
| 趙振 | 1543~1625 | 起伯 | 韓隱 | 양주 | 이황의 문인 | 서울 | 공조판서 등 |
| 權景虎 | 1546~1609 | 從卿 | 晚梧軒 | 안동 | - | 함창 | 사헌부감찰 등 |
| 李國弼 | 1540~? | 棊彦 | - | 용인 | 이황의 문인 | 서울 | 함창현감 등 |
| 金鎭 | ? | - | - | 풍산 | - | 서울 | 1549년 문과급제 |
| 鄭三變 | 1544~? | 德全 | 竹崖 | 영일 | - | 영천 | 1577년 문과급제 |
| 金質重 | 1555~? | 文甫 | - | 광산 | - | 청주 | 1585년 문과급제 |
| 鄭士信 | 1558~1619 | 子孚 | 梅窓 | 청주 | - | 서울 | 1582년 문과급제 |
| 李詠道 | 1559~1637 | 聖與 | 東巖 | 진성 | 이황의 손자 | 예안 | 호조좌랑 등 |

20) 문과 급제의 사실이 있는 경우 급제 연도를 표기했고, 遺逸이나 蔭補로 관직을 역임했을 경우 대표 관직을 표기했다.

금난수가 공무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서 어울리는 인물들은 그 특징이 분명했다. 위의 도표에서 확연히 나타나듯이 금난수가 서울에서 교류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영남지역 출신이거나 퇴계의 문인이었다. 기본적으로는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분명하지 않으면 혈연 또는 혼맥으로 연결된 경우였다.²¹⁾ 예컨대 정복시는 서경덕의 문인이지만 금난수와는 이종사촌 관계였으므로 서울 생활 당시 가장 친하게 지낸 인물이었다. 모임의 사례가 많지만, 그중 하루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금난수가 서울 김택룡의 집에서 조목을 전별할 때 쓴 일기이다.

□ 1587년 12월 25일

趙陝川[조목]을 김시보[김택룡] 집에서 전별하였다. 정자정 영공[정탁], 정이건 형[정복시], 金鎭, 민백향[민응기], 이균미[이교], 李貽後, 金希中, 權從卿[권경호], 정자부[정사신], 李勁直, 安天賚, 박거중[박려], 이성여[이영도], 김시보 등이 모두 모였다.²²⁾

조목을 조 합천이라 표기한 것은 1587년(선조20) 11월에 조목이 합천군수에 제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조목은 사은숙배를 위해 상경했다가 합천으로 떠나는 상황이었다. 김택룡의 집에 모인 인물들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옆에 실명을 표기했다.²³⁾ 김택룡은 서울에 올라간 후 금난수와 자주 만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난수가 교류하는 인물들과 새롭게 친분을 쌓기도 하고 또는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도 했다.

1591년(선조24)부터 1604년(선조37) 금난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남이 드문드문한 것은 임진왜란의 영향과 함께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

21) 금난수는 서울에서 관직생활 당시 육촌계 혹은 육촌회의 친족 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데, 세종대 좌의정 李原을 증조로 모시는 내외손과 그 후손들의 모임이었다. 금난수의 외조모 고성어씨가 이원의 증손녀였기에 금난수를 기준으로 외조모쪽 내외 10촌 형제들이 참여하는 계회였다.(박중천, 「<성재일기> 해제」, 『(국역)성재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9, 40~43쪽.)

22) 금난수, 『성재일기』, 1587년 12월 25일.

23) 李貽後, 金希中, 李勁直, 安天賚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 때문이다. 이해부터 김택룡은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며 서울 또는 타지에 머무르는 날이 많았다.²⁴⁾ 반면 금난수는 낙향해 지역에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김택룡이 고향에 돌아올 때 만남을 가지는 정도였다.

『성재일기』만큼 현장감이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김택룡이 주로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는가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에서 일정부분 파악이 가능하다. 1596년(선조29) 7월 시강원에 입시할 때 俞大禎(1552~1616)이 술과 안주를 보내 金弘微(1557~1604)와 즐겁게 마시며 시를 읊었다는 기록이 있고,²⁵⁾ 1599년(선조32)에는 영주 소수서원에서 경상도관찰사 韓浚謙(1557~1627)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1600년 가을에는 접반사로 임명되어 명나라 장수 賈遊擊의 군영에 있었고, 겨울에는 명나라 군대의 頒料都監으로 강화도 교동현에 머물렀으며, 이듬 해에는 명나라 군대를 따라 평안도에 갔었다.²⁶⁾ 이때 김택룡은 그곳의 중국인들과 다수의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 작품들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1601년에는 掌樂院에서 열린 嶺南同道會에 참석했는데, 당시 이 모임은 영남 출신의 관료들이 서울에서 만든 모임이었다.²⁷⁾ 참석한 인물들

24) 김택룡은 1586년 경릉 참봉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1588년 문과에 급제하고 그해에 정8품에 해당하는 승문원저작에 임명되었으며,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선조를 의주로 호종한 일도 있었다. 1594년에는 승문원박사·봉상시직장·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김택룡의 「연보」 참조) 1595년 병조좌랑·사간원헌납·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으며, 1596년에는 사헌부지평·세자시강원 겸 사서 등을 역임했다. 1597년에는 도원수 종사관을, 1600년에는 성균관전직을, 1602년에는 안동부교수를, 1604년에는 강원도도사를, 1607년에는 전라도도사를 역임했다. (『조선왕조실록』 참조) 문집에 수록된 「연보」와 김령의 『계암일록』에 의거하면 김택룡은 1608년 영월군수에 부임해 1610년까지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끝으로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 김택룡의 『조성당집』에서 「조성당선생연보」의 해당연도와 「시강원에서 우연히 짓다 [侍講院偶題]」의 주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이상은 『조성당집』의 「조성당선생연보」 참조.

27) 이에 대한 연구로는 나영훈의 「17세기 在京 嶺南 官僚의 同道會와 결속 배경 -1601년 『영남동도회첩』을 중심으로-」(『장서각』 4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3)가 있다.

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상주 7명 · 함창 4명 · 김산[김천] 1명 · 안동 1명 · 예안 1명[김택룡] · 성주 1명 · 영해 2명 · 군위 3명 · 의성 1명 · 고령 1명 · 거창 1명 · 초계 1명 · 단성 2명 등 총 26명이었다.²⁸⁾ 김택룡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는 李好閔(1553~1634)과 위의 도표에 보이는 권경호 정도가 파악된다. 이후 1602년부터 1610년까지는 안동부 교수와 강원도도사·전라도·영월군수 등의 외직을 역임하거나 예안에 머무르면서 공적인 교류와 사적인 교류를 넘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611년(광해군3) 65세부터 생을 마감한 1627년(인조5) 81세까지 김택룡은 주로 본가가 있는 예안과 山莊이 있는 영주-봉화 권역[현재 영주]를 오가며 일상을 영위했다.²⁹⁾ 그의 일기는 1612년·1616년·1617년 약 3년간의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 시기에 기록한 것이라 이 당시 김택룡의 인맥 기반 구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략이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김택룡은 지역을 벗어나 서울과 타지에서 관직을 역임하며 바쁘게 생활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또는 선택적으로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인물들을 만나며 인맥을 형성했다. 공무 속에서 그보다 확장된 인맥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만년에 고향에서 생활할 때에는 혈연과 혼맥 중심의 인물들과 교류가 두드러진다. 지역적으로는 그 반경이 예안과 영주로 집약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예안 내에서도 본가가 있던 한곡을 비롯해 조목이 거처했던 월천[현 안동 도산면 월천길]과 금난수가 거처했던 부포[현 안동 예안면 부포리]를 자주 오갔다. 이때는 조목과 금난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주로 그의 자제들과 교류했다. 조목의 장남 趙壽朋(1579~?)과 차남 趙錫朋(1587~1657) 그리고 금난수의 아들들이다. 김택룡은 『조성당일기』에서 이들과 가깝게 교류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기

28) 김택룡, 『조성당집』 부록, 「嶺南同道題名卷」

29) 이에 대해서는 유인태의 「17세기 예안-영주-봉화를 잇는 한 양반의 생활 경계-〈조성당일기〉에 기록된 김택룡의 생활공간 복원」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록하고 있다. 또한 조목의 아내 안동권씨를 ‘월천 대부인’이라 지칭하면서 그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당시 도산서원 원장을 맡고 있던 금경과도 꽤 자주 만났다. 그와는 향촌 내외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친밀감을 드러내었다.

이 시기 김택룡은 학맥으로 맺어진 인물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도산서원에 스승 월천 조목의 종향을 추진하는 일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김택룡은 월천의 문인으로 그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 당시 월천계 문인들은 월천의 종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쏟았는데, 특히 金中淸(1537~1629)의 경우 당시 예조좌랑으로 있으면서 대북 정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종향의 성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다. 또한 김중청의 문인이자 이덕홍의 아들들인 李堧(1571~1616)·李沚(1573~1623)·李葦(1579~1627)·李慕(1582~1639) 4형제도 당시 정계에 진출해 김중청과 함께 종향의 성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김택룡의 일기에는 그가 금경, 김중청과 뜻을 함께하며 긴밀히 교류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월천계가 아닌 퇴계 문인들과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택룡이 지역 내에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은 주로 예안현 오천에 거주하는 광산김씨와 봉화김씨였다. 대표적 인물이 금융훈과 金坪(1563~1617)이었는데, 이들과는 같은 지역에서 비교적 가깝게 어울렸으면서도 이 문제에 당면하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김택룡의 둘째 사위가 金光纘(1564~1613)으로 김평의 종질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과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령이 쓴 『계암일록』에도 ‘월천종향’을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택룡과 김령이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만큼 각자의 시선이 머무른 상황과 그에 대한 생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김령은 김택룡을 가리켜 ‘김 영월 어른’이라 지칭하다가 월천종향의 추진 과정 동안은 김택룡이라는 이름 그대로 표기하거나 또는 무

리를 붙여 표기해 그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묻혔을 때 다시 ‘김 영월 어른’이라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 교류 인맥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단절하지 않는 이상 정도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며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문학 네트워크의 형성과 특징적 경향

김택룡은 젊어서는 배움과 학문 중심으로 교류했고, 경릉참봉을 시작으로 중앙 관직에 진출하면서부터는 학연과 지연을 넓게 아우르며 교류했다.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연은 범위가 좁아지고 학연은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교류했다. 이 장에서는 김택룡의 변화하고 움직이는 인맥 속에서 문학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려 한다. 문학 네트워크는 한시 수수 및 詩會 참여 등을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한시 창작 경향과 연동되어 있다. 김택룡의 한시 창작 경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시 창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문집의 분량이 많지 않기에 김택룡의 한시 작품이 풍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성당일기』에서 포착되는 몇몇 장면들은 그가 여가가 생길 때마다 한시를 즐겨 창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기에는 김택룡이 영주의 산장에 있었던 玩心塘을 산보하거나 누대에 올라 자연을 완상할 때면 으레 시를 읊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³¹⁾ 또한 김택룡이 遊山을 즐겼으며 그때마다 한시를 창작했다는 점도 알 수 있는데, 남아있는 일기에는 그가 1612년(광해군5) 4월 소백산을 유람하고 유산록과 시를 정

30) 이에 대해서는 최은주의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퇴계학과유교문화』 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31)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년 3월 23일.

리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아들과 제자들에게 문장 및 시의 작법을 강조하며 직접 가르친다는 점에서도 그가 한시 창작을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볼 때 과거 시험을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 크겠지만, 결국 이런 학습 과정들을 통해 작문 작시 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면 김택룡 본인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시 창작을 연습했다고 볼 수 있다. 일기에서는 한유의 「元和聖德詩」를 비롯해 그의 시와 문장을 가르치는 장면, 두보의 시를 가르치는 장면, 風騷 즉 시경과 초사를 가르치는 장면³²⁾ 등이 드문드문 포착된다. 한유의 시를 가르쳤던 날의 일기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1612년 7월 4일 : 아들 대생에게 「원화성덕시」를 가르쳐 시 작법을 익히게 했다.³³⁾
- ② 1616년 5월 20일 : 아이들이 한유의 시와 문장을 배웠다. / 5월 22일 : 아들 김각이 한유의 시를 배웠다. / 5월 24일 : 아들 김각이 시와 한유의 문장을 배웠다. / 5월 29일 : 아들 김각이 한유의 문장을 배웠다.³⁴⁾

스스로 한시를 즐겨 지었기에 그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시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임도 詩會라고 부를 수는 있을텐데, 다만 일회성이고 순간의 흥취를 즐기며 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김택룡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은 양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만년에 지은 작품들로 추정된다. 물론 이것은 집안에서 보관하던 시편들이 전란과 화재로 중간에 소실되고 일부만 남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시 창작 자체가 바쁜 일상에서는 시도하기 어

32)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년 6월 6일·16일.

33)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2년 7월 4일, “敎生兒元和盛德詩以習步驟”, 盛은 聖의 오기이다.

34)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년 5월 20일, “兒輩學韓詩與文”; 5월 22일, “穀兒學韓詩”; 5월 24일, “珏學詩與韓文”; 5월 29일, “珏兒學韓文”

려운 측면이 있고, 관직 생활로 공무에 시달릴 때에는 더욱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문집에 수록된 김택룡의 한시는 총 134제 319수인데 연작시가 많다. 창작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시기별 작품 가운데 증시나 차운시가 있을 경우 한시 교류로 분류해 인물명을 표기해 덧붙였으며, 만사는 별도로 구분했다.

[표-3] 김택룡의 한시 작품 현황

| 창작시기 | ~1585년(39세) | 1586년~1610년(64세) | 1611년~1627년(81세) |
|------|-------------|---|-------------------------------|
| 작품 수 | 5제 7수 | 65제 147수 *이중 약 45%가 1600년·1601년에 창작 | 64제 165수 |
| 한시교류 | · 조목(1) | · 이호민(1) · 유대정·김흥미(1) · 한준겸(2) · 박록(1) · 이흥문(1) · 홍이상(2) · 신성기(3) · 신옥(4) · 김구정(1) · 금인(2) · 조목(1) *중국인은 제외 | · 김득(1) · 금경(1) · 금개(1) |
| 만사 | · 정담 · 이준 | · 조목 · 권우 | · 오운 |

전체 작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작품이 1611년(광해군3) 65세 이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월군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지역에서 비교적 느슨한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기에서 김택룡은 예안 한곡 본가와 영주의 산장을 오가며 비교적 한가로울 때 시를 읊곤 했던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다. 시에서도 이러한 단서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임당에 홀로 앉아 시 원고를 쓰며[林塘獨坐走稿]」라는 작품은 8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그중 첫 번째 시 일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寒泉子賦歸來
坐臥淒息於其中
飯一盂蔬一盤
食飽無事甘長終
唸詩成百首
長嘯倚孤筇
不作入京書
但鍊修真功

한천자는 귀거래사 읊으며
그 속에 앉았다 누웠다 은둔하네
한 사발 밥과 한 쟁반 채소로
배불리 먹고 일없이 여생을 마치려네
읊조린 시는 백 편을 이루었으니
지팡이에 기대어 휘파람 길게 분다네
도성으로 보낼 편지는 쓰지 않으리니
다만 참된 공부 수련하리라.³⁵⁾

임당은 영주의 산장에 있던 연못이며, 한천자는 김택룡이 스스로를 가리켜 부른 것이다. 귀거래사를 읊으며 은둔하는 자신의 모습과 안빈낙도를 즐기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그런 생활 속에서 읊조린 시가 백 편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가깝게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많은 시를 창작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택룡은 이 시절에 지은 시 작품 곳곳에서 詩興과 함께 시 짓기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창작 시기에 따른 작품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1586년 40세부터 1610년 64세까지 지은 시 가운데 45%에 달하는 작품이 모두 1600년과 1601년에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택룡은 1600년 가을 접반사로 임명되어 명나라 장수 賈遊擊의 군영에 있었고, 겨울에는 명나라 군대의 頒料都監으로 강화도 교동현에 머물렀으며, 이듬해에는 명나라 군대를 따라 평안도까지 갔었다. 이 기간에 김택룡이 지은 시는 총 30제 47수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함께 지냈던 중국인에게 준 작품이 20제 29수이다. 나머지 10제 18수 가운데 3제 5수는 자신의 회포를 서술한 시이며 7제 13수는 교동현감 辛成己(1558~?)와 당시 배천에 있었던 申沃(1534~1619)에게 보낸 시이다. 이러한 사실이 방증하는 것은 활발한 한시 창작의 배경에는 시간적 여유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김택룡이 한시로 교류한 중국인은 모두 8명인데 천총 심도소 · 파총

35) 김택룡, 『조성당집』 권1, 「林塘獨坐走稿」

왕일룡 · 상공 임학령 · 상공 서원진 · 과충 양위 · 요순경 · 유덕지 · 왕홍 등이다. 이 중 相公 林鶴齡은 한시를 즐겨 지었던 인물로 보이는데, 그가 가유격대장군을 따라 동방 원정을 나서면서 그 사이에 지은 많은 작품들을 별도로 정리해 『東征遊草』라는 초본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날 김택룡이 임학령과 담소를 나누다가 그가 쓴 시를 보고 감탄하면서 다른 시도 보여줄 것을 요청했었더니, 이후에 편지와 함께 시편들을 보내왔다고 했다.³⁶⁾ 임학령이 보내준 시편을 받아보고 쓴 시가 「상공 임학령이 <동정유초> 두 책을 보내기에 감사하며 드리다[林相公鶴齡送東征遊草二冊 謝贈]」라는 작품이다. 김택룡은 이 시에서 춥지만 맑은 날씨의 겨울날 임학령이 보내준 시를 한가롭게 읽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³⁷⁾ 이해 명나라로 돌아가는 배가 바람에 막혀 어쩔 수 없이 교동현에서 겨울을 머물러야만 했기에 김택룡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진 때였다.³⁸⁾ 이듬해 4월이 되어서야 명나라 군대가 평안도로 향했는데 그때 임학령이 자신의 시책에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아래의 예문은 그 가운데 일부분인데, 임학령과 한시를 주고받은 장면이 짙진하게 그려져 있다.

근래에 또 나를 위해 「寒谷十六詠」의 장편 시를 지으니, 그 시는 더욱 읊을 만하였다. 關西의 歸路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고삐를 나란히 하며, 앉을 때는 반드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잠잘 때는 이불을 같이 덮고 먹을 때는 밥상을 같이 사용했다. 술이 있으면 함께 취하고, 흥을 만나면 함께 읊었으니, 시 주머니에 담은 작품이 전날의 주옥같은 백 편의 시뿐만이 아니었다. 공이 서문을 지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문장을 잘 짓지 못한다는 말로 두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조르기를 멈추지 않으니 드디어 서투르다는 것도 잊고 뻘뻘스럽게 글을 지었다.³⁹⁾

36) 김택룡, 『조성당집』 권3, 「東征詩序 贈別天朝林少庵相公(鶴齡)」

37) 김택룡, 『조성당집』 권2, 「林相公鶴齡送東征遊草二冊 謝贈」, “暉暉冬日小窻昇 攤飯胡床坐獨凭 兩卷清詩光照榻 詠來齒頰欲生水.”

38) 김택룡은 명나라의 상공 임학령에게 써준 ‘東征詩’의 序文 첫머리에서 만력(萬曆) 경자년(1600) 가을에 왕명을 받들어 賈游擊大將軍의 接伴使로 있을 때 명나라로 돌아가는 배가 바람에 막혀 喬桐의 北津에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고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임학령은 김택룡의 「한국십육영」에 차운해 「열여섯 수로 읊은 서투른 시를 한국의 김 사백계 써서 드리니 바로잡아주시기를[十六詠拙言錄墨寒谷金詞伯斤正]」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조성당집』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평안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김택룡과 임학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흥이 돋을 때마다 시를 지었다고 했다. 다른 중국 장수들과의 한시 교류도 이와 같은 양상이었을 것이다. 그는 중국 장수들과 시 짓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양몽득 선생이 임 상공 서 상공 장 상공 및 나와 함께 시 짓는 모임을 만들어[楊先生夢得與林相公徐相公張相公泊余 爲詩社會]」라는 시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⁴⁰⁾ 김택룡은 이 시에서 “네 선생이 한 서생을 생각해, 시 모임에 모여서 나 그네 심정 펼치네[四先生念一書生 詩社來從展客情].”라고 하였다. 이 시절에 김택룡이 펼친 한시 교류는 그가 형성한 문학 네트워크의 특징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주어진 상황, 제한된 공간, 한가로운 시간 속에서 김택룡이 택한 것은 그곳의 인물들과 한시를 교류하며 이를 통해 客愁와 시름을 잊고 갑자기 닥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는 것이었다. 마침 시를 즐기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던 터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1586년 40세부터 1610년 64세까지 1600년, 1601년 접반사를 역임할 때를 제외하면 시가 매우 소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관직에 따른 공무와 지역 名士로서 바쁘게 보내는 날들이 많았을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한시 창작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겠다.

김택룡이 한시를 교류했던 대상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당시 창작 배경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39) 김택룡, 『조성당집』 권3, 「東征詩序 贈別天朝林少庵相公(鶴齡)」, “又爲余作寒谷十六詠長篇 其詩尤可歌詠 而關西歸路 得與相携 行必并轡 坐必同席 寢則聯衾 食則共案 得酒則同醉 遇興則同詠 其收拾於奚囊者 不但前日之百篇珠璣而已也 公命序之 余以不文辭者 再黜之不置 遂忘讓拙 強顏而爲之辭.”

40) 김택룡, 『조성당집』, 「楊先生夢得與林相公徐相公張相公泊余 爲詩社會」, “四先生念一書生 詩社來從展客情 大截朋尊雖未辦 清談無罷 空.”

[표-4] 김택룡의 한시 교류 현황

| 인물 | 생몰연도 | 호 | 자 | 본관 | 교류시기 | 당시관직 or 상황 | 김택룡 관직 or 상황 | 배경[출전] |
|--------------|-----------|-----|----|----|----------------|------------------|-----------------------|------------------------------|
| 琴軻 | 1510~1592 | 松溪 | 伯任 | 봉화 | 1592년 이전 | 봉화거주 | 修學 중 | 차운 및 증시[문집] |
| 趙穆 | 1524~1604 | 月川 | 士敬 | 횡성 | 미상 | 예안거주 | 修學 중 | 인근 유람[문집] |
| 俞大禎 | 1552~1616 | - | 景休 | 기계 | 1596년 | 음식보냄 | 시강원 숙직 | 숙직때 보내준 음식물에 대한 감사[문집] |
| 金弘微 | 1557~1605 | 省克堂 | 昌遠 | 상주 | | 시강원 숙직 | | |
| 韓浚謙 | 1557~1627 | 柳川 | 益之 | 청주 | 1599년 | 경상도 관찰사 | 미상 | 영주 소수서원 유생모임[문집] |
| 辛成己 | 1558~? | - | 仁叟 | 영산 | 1600년 1601년 | 교동현감 | 명나라군 대접반사 | 술자리 모임 贈詩[문집] |
| 申沃 | 1534~1619 | 啓叔 | 啓叔 | 평산 | 1600년 1601년 | 배천거주 | 명나라군 대접반사 | 차운 및 증시 등 [문집] |
| 洪履祥 | 1549~1615 | 慕堂 | 君瑞 | 풍산 | 1602년 | 안동부사 | 안동 부교수 | 홍이상 자제 사마시 합격잔치[문집] |
| | | | | | | | 안동 제독관 | 제독관사직 [문집] |
| 秦宗吉 | 1537~1612 | 應賀 | - | 영정 | 1602년 | 영주거주 | 영주거주 | 생일연 차운시 [문집] |
| 李 儼 | 미상 | | 景明 | | 1602년 | 영주군수 | 영주거주 | 증시 |
| 李好閔 | 1553~1634 | 五峯 | 孝彦 | 연안 | 1600년대 | 미상 | 풍악산 유람 | 이호민의 시 차운[문집] |
| 金功 | 1540~1616 | 柏巖 | 希玉 | 예안 | 1611년 | 영주거주 | 영주거주 | 술자리 모임[문집] |
| 琴潔 | 1544~1615 | 二樂堂 | 濯卿 | 봉화 | 1612년 | 선전관 | 예안거주 | 관직 임명 축하잔치[일기] |
| 영주군수 (姜公) | 미상 | - | - | - | 1612년 | 영주군수 | 영주거주 | 송별연[일기] |

| | | | | | | | | |
|-----|-----------|-----|----|----|----------|------|------|---------------|
| 琴愷 | 1553~1634 | 月潭 | 彦覺 | 봉화 | 1611년 이후 | 예안거주 | 예안거주 | 방문[문집] |
| 琴愷 | 1562~1629 | 望月軒 | 彦康 | 봉화 | 1611년 이후 | 예안거주 | 예안거주 | 차운[문집] |
| 朴灑 | 1542~1632 | 醉睡翁 | 子澄 | 나주 | 1611년 이후 | 영주거주 | 영주거주 | 초대방문[문집] |
| 金允安 | 1560~1622 | 東籬 | 而靜 | 순천 | 1613년 이후 | 안동거주 | 예안거주 | 장난삼아 준 시 [문집] |

스승 조목과는 주고받은 시가 많지 않다. 다만 시 창작 당시 조목과 금난수에 대한 감회가 떠오르면 여지없이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말년에 지은 작품들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봉화의 琴軻, 영주의 金功과 朴灑 그리고 秦宗吉, 예안의 琴潔과 琴愷 등 지역에 거주했던 문인들과의 교류는 자연스럽다. 각자 또는 김택룡의 관직 생활 등에 따라 지역을 벗어났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하는 가운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한시 교류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인은 당시 지역에서 시로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택룡의 문집에는 금인에게 써서 올린 시 2제 2수와 편지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그의 한시에 대한 칭송이 많다. 김택룡은 “송계 시 짓는 노인 기상이 높으니, 본디부터 흥금에는 속세가 섞이지 않았네[松溪詩叟氣象高 太古胸中無雜俗]”라며 금인을 가리켜 詩叟라 일컫기도 했다.⁴¹⁾ 한시 창작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김택룡이었으므로, 금인에 대한 존경심도 깊었지만 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륙과 박륙은 연배도 비슷하고 몰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으므로 만남이 꽤 잦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택룡의 일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만큼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특히 김륙과는 함께 시회도 도모할 만큼 한시 교류

41) 김택룡, 『조성당집』 권2, 「上松溪琴丈(軻)」

가 적지 않았다. 금난수의 장남 금경과 차남 금개 또한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며 절친했던 사이였으므로 지역에서는 많은 일을 의논하고 또 의지했다. 그 속에서 시흥이 돋거나 계기가 마련되면 역시 한시를 교류하며 정을 나누었다. 김택룡은 금개의 시에 차운해 작품을 짓고 곁해서 그의 형제들 즉 금경·금업·금개 모두에게 올린다는 제목의 시를 짓기도 했다.⁴²⁾

지역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경우 김택룡의 경력이 영향을 끼친 인연들이다. 유대정과 김홍미는 김택룡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 당시 만났던 동료들이었다. 그는 「시강원에서 우연히 짓다[侍講院偶題]」라는 시의 주석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며 당시를 회상하였는데, 이 글에서 김홍미와 왜 같이 시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시를 유대정에게 왜 보냈는지를 밝히고 있다.

내가 병신년(1596) 봄에 輔德 金弘微와 시강원에 속직 들었을 때 兪大禎이 文學으로 동료가 되어 시강원에 술과 안주를 보내니, 창원과 함께 마시고 각자 시 한 장을 지어 유대정에게 인사하였다. 寒谷에 돌아오고 나서 문득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지난번 어지러운 원고 속에 우연히 얻으니 옛날 감회가 일어 시권 끝에 그 시를 썼다. 아, 창원은 벌써 고인이 되었고 경휴는 멀리 한양 서쪽에 있어 소식 또한 제때에 받지 못한다. 백발로 감회가 이니 어찌 감개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를 아울러 써서 옛날 감회에 붙인다.⁴³⁾

김택룡은 마지막 부분에서 김홍미는 세상을 떠났고 유대정은 멀리 한양에 있어서 만남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제때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물리적 거리 때문이라도 그 인연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에, 편지 왕래도 한시 교류도 매우 제한

42) 김택룡, 『조성당집』 권2, 「謹步琴驪州彦康韻 兼呈伯仲季案下」

43) 김택룡, 『조성당집』 권1, 「侍講院偶題」 “余於丙申春 與輔德金[弘微]昌遠入番侍講院時 兪[大禎]景休以文學爲同僚送酒肴于院中 與昌遠飲之 各賦詩一章 以謝景休 歸來寒谷 倏忽廿餘星霜 頃於亂稿中 偶得之 感舊而題諸卷端 噫 昌遠已作古人 景休邈在漢西 音信亦不以時 白首興懷 寧不慨然 今此并寫 以寓感舊之懷耳。”

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상도관찰사 韓浚謙, 안동부사 洪履祥, 영주군수 李(攬)과 姜公[성명미상] 역시 김택룡의 관직 경력이 있었기에 교류가 가능했던 인물들이다.

김택룡의 일기와 문집에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회를 즐기는 모습도 종종 포착된다. 일기에는 물고기 회식을 자주 가지며 흥이 돋으면 때때로 시를 지어 서로 화차운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이 경우 일기의 속성상 자신에게 의미있는 내용만 선택해서 쓰다보니 정작 시 작품이나 참여 인물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아래의 도표는 문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 시회를 통한 한시 교류 현황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5] 시회를 통한 한시 교류 현황

| 날짜 | 장소 | 참여 인물 | 비고 |
|----------------|----|---|----|
| 1599년 1월 16일 | 영주 | 한준겸(경상도관찰사), 이육(풍기군수), 하수일(창락도찰방), 민홍업(소수서원 원장) | 문집 |
| 1602년 6월 20일 | 영주 | 이각(영주군수), 김륙, 오운, 박록(찰방) | 문집 |
| [1602년] 4월 29일 | 영주 | 금복고, 김륙, 오운 등 20명 | 문집 |
| 1611년 9월 9일 | 영주 | 김륙 외 | 문집 |
| 미상 | 예안 | 금경 외 | 문집 |

김택룡의 문학 네트워크는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영주에 좀 더 집중된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예안 및 안동에서는 월천계 문인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서에게·학봉계 등 비월천계 문인들과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영주의 퇴계 문인들 예컨대 박승임·오운·김륙 그리고 그의 자제들과는 친연성을 드러내며 한시도 교류하였는데, 이는 ‘월천종향’과 같은 이해 충돌의 상황이 크게 없어서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개인의 인맥 기반 내에서 구축되는 문학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선택적이고 또 집중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김택룡의 문집과 일기를 교차 분석해 그의 인맥 기반을 추적한 것이다. 더불어 구축된 인맥 기반 위에서 문학 네트워크는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김택룡의 인맥 기반에서 혈연 및 혼맥 관계를 제외하면 금난수, 조목이 기본적인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상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교류한 인물들로는 금난수와 조목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포진해있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갈등했던 인물들로는 퇴계의 문인들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40세 이전은 과거 대비 공부와 학문 연마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고, 40세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1610년(광해군2) 64세까지 김택룡은 지역과 서울 그리고 외직에 따라 임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했다. 1611년부터는 다시 예안과 영주 그리고 봉화를 오가며 지역에서의 일상을 영위했다. 그의 인맥 기반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지역을 벗어나 있을 때는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범퇴계학과 및 영남 출신의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했다면,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학과내에서도 월천계 그리고 예안내에서도 월천의 황성조씨 가문과 부포의 봉화금씨 가문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말년에는 ‘월천종향’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퇴계학과 비월천계 인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김택룡의 문학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선택적이고 집중적이었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순간이었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제한된 영역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을 때였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간이 1600년·1601년 명나라 군대의 접반사가 되

어 교동에 머무를 때었는데, 김택룡은 이 시절에만 중국 장수·교동현 감 등을 비롯해 총 10명에게 30제 47수의 한시를 써서 주었다. 이 외에는 특정시간 특정인물에게 집중되지 않았는데, 다만 관직 생활 등으로 쌓은 본인의 명망과 위상을 토대로 경상도관찰사·안동부사·영주군수 등 지역 수령들과도 긴밀하게 한시로 교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인맥은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조건들, 예컨대 출신 지역과 가문의 위상·학맥 계승·과거 급제 및 관직 활동 등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구축된다. 또한 한 번 구축된 인맥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류로 친밀감이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소원해지거나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인맥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그 속에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시 교류 등의 문학 네트워크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익숙하던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연대감을 요구하며, 때때로 목적성을 깔고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의 인맥 전반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의도적 또는 집중적인 특징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일기와 문집을 활용해 인맥 기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이 위에서 문학 네트워크의 형성을 살펴보면 입체적인 한시 해석도 가능하다. 김택룡의 경우 금난수의 아들 금경에게 준 차운시가 있는데, 이 시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羅浮天地似畫中
訪子何嫌衆謗叢
爲把深盃情款曲
萬點梅雪謝東風

나부산 천지는 그림 속 같으니
그대 찾아가는데 뭇 비방 어찌 꺼리랴
깊이 따른 술잔 잡고 정다운 맘 나누니
점점이 핀 눈 속의 매화 봄바람에 인사하네⁴⁴⁾

나부산은 예안의 부포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산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구절에서 금경이 거쳐하는 부포 마을의 그림 같은 경치를 언급하고는 둘째 구절에서 친구를 방문하는데 남들의 뭇 비방을 꺼릴 일이

44) 김택룡, 『조성당집』 권1, 「次贈浮浦琴彦覺」

뭐가 있겠냐며 자신의 심정을 은근히 드러내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렇게 만난 금경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다. 네 번째는 구절은 눈 앞에 펼쳐진 계절의 풍경이었겠지만, 곧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분위기를 담아내었다고도 보인다. 김택룡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당시 도산서원 원장이었던 금경과 함께 월천종향을 한참 추진 중이었던 시기였다. 향내 반대 여론에 부딪치며 주변의 많은 인물들과 갈등을 빚었으므로, 김택룡이 금경에게 가지는 마음은 더욱 특별했을 것이다. ‘그대 찾아가는데 못 비방 어찌 꺼리랴’는 구절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야 이해가 가능하다.

※ 이 논문은 2023년 08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인과 가족-김택룡 가족의 이야기-」, 『복현사림』 35, 경북사학회, 2017, 33~50쪽.
- 나영훈, 「17세기 在京 嶺南 官僚의 同道會와 결속 배경-1601년 『영남동도회첩』을 중심으로-」, 『장서각』 49,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118~151쪽.
- 박동일, 「月川學團의 동향 일고찰-趙穆의 합천지역 교유인물과 陶山書院 從享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57,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65~93쪽.
-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과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43~84쪽.
- 백광열, 「예안 사족 김택룡과 영남사족사회」,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49~93쪽.
- 유인태, 「17세기 예안-영주-봉화를 잇는 한 양반의 생활경계」,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95~139쪽.
- 윤성훈, 「〈조성당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초 영남 사족의 일상 속의 문화생활」, 『한문학논집』 35, 근역한문학회, 2012, 9~36쪽.
- 조지형, 「조성당 김택룡의 예안 생활과 시조 창작」,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295~331쪽.
- 최은주,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235~272쪽.

Abstract

Personal and Literary Networks of Joseongdang(操省堂) Kim Taek-ryong(金澤龍)

Choi, Eun-ju

Through a cross-analysis of the literary collections and diaries of Kim Taek-ryong (1547-1627), a classical scholar from Yean, Gyeongsang Province, this study aims to first examine his network of connections throughout his life, and then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his literary network. In Kim Taek-ryong's network, apart from blood and marriage networks, his teachers Jo Mok (1524-1606) and Geum Nan-su (1530-1604) formed the basic axis. Those with whom they interacted closely and intimately on a day-to-day basis included Geum Nansu and Jo Mok and others around them, while those with whom they maintained loose relationships, sometimes in solidarity, sometimes in conflict, included Toegye's literati and people around them. Before the age of 40, Kim Taek-ryong lived mainly in the local area while studying and polishing his scholarship, and after the age of 40, he began his official life in Seoul. From 1610 (Year 2 of King Gwanghae-gun's reign) until the age of 64, Kim Taek-ryong traveled between the local area, Seoul, and other places according to his official duties. By 1611, he traveled again back and forth among Yean, Yeongju, and Bonghwa to lead a local life. A characteristic phenomenon in his networking base is that when he was out of the region, he interacted with a wide range of people from the pan-Toegye school and Yeongnam on school relations and regionalism,

but when he returned to the region, he narrowed his circle to Wolcheon school within the school and the Hwaseong Jo family of Wolcheon and the Bonghwa Geum family of Bupo in Yeon. Moreover, in his later years, events such as the ‘enshrinement of Wolcheon’ led to conflicts with non-Wolcheon figures in Toegye school.

Kim’s literary network was selective and intensive in terms of time and space. In the temporal dimension, it was the moment when time was available, and in the spatial dimension, it was when a limited area was naturally created. The period that satisfied both of these conditions was when Kim stayed in Gyodong as an attaché of the Ming army from 1600–1601, and during this period alone, Kim wrote 30 poems in 47 stanzas and gave them to a total of 10 people, including the Chinese general and the prefect of Gyodong. Other than this, he did not focus on a specific person at a specific time, but it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he closely exchanged Han poems with local governors such as Gyeongsang-do Governor, Andong Governor’s Aide, and Yeongju County Governor based on his reputation and status accumulated through his official life.

keywords :

Kim Taek-ryong, Joseongdang Diary, Literary network, Geum Nan-su, Jo Mok, Enshrinement of Wolcheon